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선동**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0. 15(월)	담당자	서준하 비서관
문 의	784-8971~3		박필동 보좌관

## 감사원 감사, 시스템 고도화에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여전히 ‘먹통’

- 입찰 정보 수신 장애, 수신 실패 원인조차 파악 못해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째 파견직원이 관리
- 파견 직원에게 징계하지 말고, 공정위 소속 직원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도화사업 이후 발주기관별 입찰정보 수신 현황’과 조달청 등 12개 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체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인 조달청 등 12개 기관이 공정위로 보낸 입찰 정보 건수는 43,538건이었지만, 공정위사 실제 수신한 건수는 기관에서 보낸 건수보다 33,736건이 더 많은 77,274건으로 나타났다.
- 12개 기관에서 입찰정보를 보냈지만, 입찰정보를 수신하는 공정위는 수신 실패 또는 중복수신 등 입찰정보 장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감사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면, 입찰정보 수신 장애 및 자동분석 기능 정지 등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관리 및 운용 부적정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 감사원 감사 이외에 2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먹통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이후 발주기관별 입찰정보 송수신 현황을 보면, 조달청 등 12개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건수는 총 43,538건이며, 공정위가 수신한 건수는 송신 건수의 약 1.8배인 77,274건으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7년 12월에 12개 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건수는 19,355건이며, 공정위 수신 건수는 송신 건수의 약 2.5배인 48,568건으로 수신건수가 더 많다.
- 지난달인 2018년 9월을 보면, 입찰정보 송신 건수는 1,879건이고, 공정위가 수신한 건수는 1,860건으로 19건이 수신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관별로 입찰정보 송수신 현황을 보면,
  - 조달청의 경우, 고도화사업 이후 입찰정보 송신은 총 23,068건이고, 공정위의 수신건수는 22,318건이다. 방위사업청의 송신건수는 1,726건인데 반해, 공정위 수신 건수는 164건으로 1,562건은 수신에 실패했다.
  - 이에 반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마사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송신건수보다 공정위 수신건수가 더 많다. 한전의 경우 송신건수는 1,980건인데, 수신건수는 송신건수보다 약 16.6배나 많은 32,896건이다.
  - 반면, 12개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단 2개 기관만 입찰정보 송신건수와 공정위 수신 건수가 동일하다.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입찰정보가 수신되지 않은 구체적 원인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신장애 발생 사유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찰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신장애 발생 사유가 해소되었지만,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 건이 중복 전송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된다.
  - 방위사업청의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로 입찰정보 전송파일(XML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입찰정보 전송파일(XML 파일) 상 입찰 건수와 실제 파일에 포함된 입찰 건수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 자체 조달시스템을 보유한 각 기관에서 부정합한 입찰건수를 생성하여 공정위에 송신한 경우,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사회에서 9월 송신한 입찰 건의 경우에 하나의 입찰에 동일한 사업자가 두 번 참여한 것으로 입찰정보가 생성되어, 공정위 시스템 상에서는 오류로 인식되었다.
-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초 송신한 입찰건의 사업자 공고번호에 ‘\_’가 포함되어 12자리로 작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정위 시스템은 사업자공고 번호는 10자리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 입찰정보를 수신할 수 가 없었다.

지난 6월 공정위에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통해 ‘\_’를 삭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 수자원공사가 지난 5, 6, 7월에 송신한 입찰정보 143건, 66건, 18건을 공정위는 올해 7월에야 비로소 미 수신한 227건을 한꺼번에 수신하였다.

-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전담인력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우수성을 자랑하지만, 전담인력은 공정위 직원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는 조달청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왔다.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 임무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이다.
  - 2016년부터 1년씩 조달청 파견자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파견 직원이다 보니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여지가 작았다. 공정위 직원이 운영해야 공정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 김선동 의원은 “자체 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송신한 입찰정보를 공정위에서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고 누락된다면, 입찰 담한 사건들이 시스템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달청 파견 직원 단 1명에게 시스템을 전담하게하고, 책임 또한 그 직원에게 묻는 것은,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운영 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의원은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로 예산을 투입해 고도화했음에도 여전히 먹통이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단순히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김의원은 “입찰담합은 시장경제 질서는 해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전담인력 확충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요>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념)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 \* 낙찰률, 입찰참가자 수, 입찰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로 계량평가를 실시하여 85점 이상이면 담합 의심 건으로 분류
- 고도화사업 이전 시스템의 문제점
  - 입찰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담합징후 분석의 정확성에 문제
    - \* ①낙찰률↑, ②입찰자 수↓, ③예정가격 초과업체 수↑, ④입찰참가제한↑ ⇒ 담합징후↑
  - 담합징후 분석이 개별 입찰 건 단위로만 이루어져, 시스템에서 담합징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정보량이 많아 조사대상을 정하기가 어려웠음
    - ※ '15.6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찰유형별로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물품·용역 입찰의 경우 기존 분석방식에 더해 일정기간 동안의 투찰이력을 분석하는 등 시스템 개선사항을 전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17년 하반기 고도화사업으로 추진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전담 인력 파견 현황>

파견 부처	담당 업무	기간
조달청 파견 1명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	13.11~16.11
조달청 파견 1명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	16.11~17.11
조달청 파견 1명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	17.11~현재

### < 완료된 사건처리 내역 >

순번	사건명	입찰 건수(건)	피심인	조치결과 (조치일)
1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	6	대림산업 외 11개사	시정명령·과징금·고발 (2007.07.)
2	시·교육청 단체보험 입찰	32	삼성생명보험(주) 외 8개사	시정명령·과징금 (2008.10.)
3	조달청 발주 수중 및 입축펌프 입찰	39	일진전기(주) 외 19개사	시정명령·과징금·고발 (2014.01.)

- 2006년 구축 이후 2018.7월말 현재까지 시스템 탑재정보 및 담합징후분석결과를 입찰담합 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사건 기준으로 16건, 입찰 건 기준으로 563건임
  - 16건의 사건 중 3건(입찰 77건)은 사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3건(입찰 486건)의 경우 현재 사건 처리중인 상황

<고도화사업 이후 발주기관별 입찰정보(입찰 건 기준) 송수신 현황(단위 : 건)>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12개 기관 송신 건수(A)	19,355	1,862	1,835	2,552	3,673	3,265	3,362	2,491	3,264	1,879	43,538
공정위 수신 건수(B)	48,568	7,326	2,267	2,707	3,438	3,122	3,209	2,673	2,104	1,860	77,274
차이(A-B)	-29,213	-5464	-432	-155	235	143	153	-182	1,160	19	-33,736
조달청 송신	4,518	1,590	1,719	2,388	2,504	2,536	2,836	2,032	1,648	1,297	23,068
▶공정위 수신	2,093	3,647	1,685	2,365	2,407	2,478	2,831	1,952	1,621	1,302	22,381
방위사업청 송신	0	134	40	73	120	42	54	46	1,166	51	1726
▶공정위 수신	0	0	4	0	0	68	6	30	26	30	164
한국전력공사 송신	확인불가				711	341	208	207	229	284	1980
▶공정위 수신	30,134	0	524	258	711	341	208	207	229	284	32,896
한국석유공사 송신	382	1	1	1	1	1	2	1	1	2	393
▶공정위 수신	381	2	1	1	1	1	2	1	1	2	393
한국수자원공사 송신	0	0	0	0	0	143	66	18	30	21	278
▶공정위 수신	0	3,501	0	0	0	0	0	227	30	21	3,779
한국도로공사 송신	47	27	26	25	29	26	49	24	29	30	312
▶공정위 수신	58	21	10	23	24	25	31	70	29	37	328
한국마사회 송신	4	2	6	16	18	6	2	0	0	23	77
▶공정위 수신	92	1	6	15	18	6	1	0	0	21	160
인천국제공항공사 송신	779	10	5	3	4	7	15	12	8	12	855
▶공정위 수신	779	10	5	3	4	7	13	14	8	12	855
한국가스공사 송신	2	11	4	8	13	15	12	11	13	8	97
▶공정위 수신	1,515	11	4	8	12	15	10	13	14	8	1,610
한국철도공사 송신	235	5	10	6	32	20	33	38	26	23	428
▶공정위 수신	235	13	6	0	0	59	28	44	26	23	434
한국수력원자력(주) 송신	9,588	53	0	0	204	79	53	60	55	81	10,173
▶공정위 수신	9,538	55	0	0	225	75	55	65	62	69	10,144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신	3,800	29	24	32	37	49	32	42	59	47	4,151
▶공정위 수신	3,743	65	22	34	36	47	24	50	58	51	4,130